

# 인간과 생물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하여

인간의 생물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외래종 도입 등은 지구 곳곳에서 생물종의 멸종을 야기하며 생물다양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생태계 자체의 파괴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게 된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올 9월 대한민국에 모인다.



김 상 훈 |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준비기획단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정책학)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폐자원관리과장, 해외협력담당관 등 역임  
tel. 002-779-7605 | shkim@m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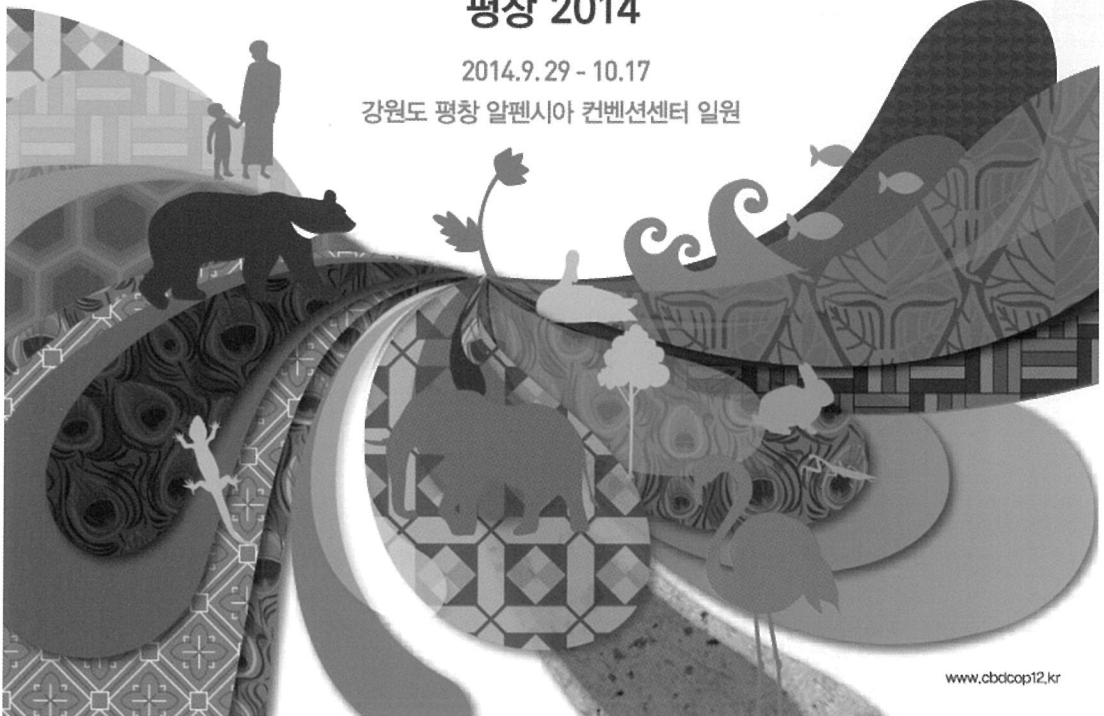
## 인간과 생물의 아름다운 공존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 2014

2014.9.29 - 10.17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일원



www.cbdcop12.kr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

2005년 유엔이 발간한 '새천년 생태계평가 보고서 (Millennium Assessment)'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 3천만여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의 생물종 멸종 속도는 과거 인간의 간섭이 미미했던 시기에 비해 약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빨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을 채택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유엔의 3대 환경협약으로 꼽히고 있다. 이 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공정한 공유라는 세 가지 목적을 지니고 출범했다.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이다.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일대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The Twelf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BD, CBD COP12)가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는 194개 당사국 대표단, 국제기구, 산업계, NGO 등 약 2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각 당

사국의 협약 이행 증진방안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위한 협력증진 및 역량강화방안, 그리고 재원동원방안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목표(2011-2020) 이행에 대한 중간 점검 ▲향후 이행 로드맵 준비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구축 ▲2015년 이후 유엔개발의제(Post-2015 Development Agenda) 설정 협상에서 생물다양성 관련 목표 반영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물다양성협약의 2대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아래에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등 두 개의 의정서가 있다.

● **첫 발효를 기대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 2014년 6월 현재 38개국 이 비준한 상황이다. 50개국이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는데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총회 개최전까지 의정서가 발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기간에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1)도 함께 개최되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자가 원산지 국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기술 선진국에서는 타국의 유전자원을 마음대로 사용

**총회 일정**

구분	기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2)	10.6(월)~10.17(금)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1) ※	10.6(월)~10.17(금)
제3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 위원회 회의(ICNP3)	2.24(월)~2.28(금)
제7차 바이오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7)	9.29(월)~10.3(금)

※ 나고야의정서 발효시 당사국총회(COP12)와 병행 개최 예정

■ 나고야의정서 비준국가 현황('14.6)

아프리카(15개국)	르완다, 가봉, 모리셔스, 남아공, 에티오피아, 세이셸, 보츠와나, 코모로,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베닌, 이집트, 케냐, 나미비아
아시아/태평양(13개국)	요르단, 피지, 인도,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시리아, 몽골, 타지키스탄, 인도네시아, 부탄, 미얀마, 베트남, 사모아
중남미(4개국)	파나마, 멕시코, 온두라스, 가이아나
유럽(6개국)	노르웨이, 알바니, 덴마크, 헝가리, EU, 스페인

했지만,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원료 원산지 국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화장품, 제약, 식품산업 등 관련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한 사용에 관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의 수출입 등 국가 간 이동, 취급,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정서는 2000년 채택되어 2003년 발효한 이래 2014년 6월 현재 167개국이 가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7년 가입했다.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7)는 새로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 가이드선(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의장국으로서 도출할 성과물

● 평창 로드맵과 과학기술협력 이니셔티브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전략 및 아이치목표(2011-2020) 이행 중간점검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위한 '평창로드맵'을 도출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평창로드맵의 구체적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으로 '과학기술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협력 이니셔티브는 생물다양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개도국 기술 수요 수렴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운영, 수요 분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평창 선언문  
 한국은 이번 총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만의 메시지를 담은 '평창 선언문'을 각료급회의에서 채택할 방침이다. 평창 선언문은 2015년 이후 유엔 개발의제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설정에 생물다양성 관련 목표 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